

종합·해설

득표수에선 야권연대가 새누리 눌렀다

4·11총선 정당별 득표수 분석

새누리 932만·민주 815만·통합진보 129만표 보수-진보 '팽팽' ... 대선정국 지지층 결집 변수

4·11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보다 116만표를 더 얻었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합한 야권연대 득표수 또한 12만표 가량 적게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수 현황 자료를 보면 총 유효투표 수 2154만5326표 중 새누리당은 43.3%인 932만4911표, 민주당은 37.9%인 815만6045표를 각각 얻었다. 양당 간 표차는 116만

8866표였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6%·129만1306표)의 득표수를 합하면 총 944만7351표가 돼 새누리당보다 12만2440표가 많았다.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민주당(127석)과 통합진보당(13석)을 합한 것보다 12석이 더 많았지만 득표수는 야권연대보다 적게 얻은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민주당

(209만6045표)이 새누리당(204만8743표)보다 4만7302표를 더 얻었다. 경기도에선 새누리당(221만8557표)이 민주당(209만9379표)보다 11만9178표를 더 확보했다.

인천에서 양당 간 표차는 2만18199표(새누리당 53만1133표·민주당 50만2934표)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득표수를 합하면 새누리당(479만8433표)이 민주당(469만8358표)보다 10만75표 많았다. 하지만, 이 역시 통합진보당의 수도권 득표수(39만7704표)를 계산하면 야권연대가 30만표 가량 더 많다.

그 밖의 지역을 보면 ▲대전 새누리당 22만3108표·민주당 23만2145표·자유선진당 14만1275표·통합진보당 2만4957표 ▲충북 새누리당 33만187표·민주당 25만772표·선진당

2만3582표·통합진보당 2만5143표 ▲충남 새누리당 30만370표·민주당 26만8778표·선진당 22만5299표·통합진보당 1만7077표 등이다.

비율로는 새누리당이 43.3%, 야권연대가 43.8%였다. 말 그대로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부딪히는 구도다. 결국,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 어느 쪽이 지지층을 더 결집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5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자유선진당, 한 석도 못 건진 국민생각과 연대 내지 통합을 통해 보수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범위를 넓히고 중도층 흡수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내달 전대 앞둔 새누리당 '수도권 대표론' 부상 '친박' 강창희이나 '4선' 김무성이나

수도권 출신 남경필·정두언 의원 거론도

다음달 열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새누리당 일각에서 '수도권 대표론'이 부상하고 있다.

15일 현재 차기 당 대표로 6선 고지를 밟은 친박(친박근혜) 핵심 강창희(대전 중구) 당선자와 백의종군하며 총선 승리에 기여한 4선의 김무성(부산 남)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표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도권 대표론은 진보와 보수의 팽팽한 대립전이 예상되는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선 수도권 출신의 참신한 인사가 당의 얼굴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TK(대구·경북)인 만큼 그 지역을 피해 대표를 뽑는 게 좋다"면서 "이왕이면 수도권 출신이 좋고, 그것이 쇠신의 이미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4·11 총선 성적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 비대위원장의 활약과 민주당 통합당의 잇단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152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이라는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

나 수도권에선 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의석 112석 중 43석을 얻는데 그쳤다. 총 유효투표 3890만명(2010년 기준)의 49%인 1900만명이 모여 있는 수도권 민심을 잡지 못하고는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단의 수도권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 대표론도 그 대책의 일환이다. 5선 고지를 밟은 남경필(경기 수원) 의원과 3선이 될 정두언(서울 서대문)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통합진보 시당·총선 출마자 “시민성원 감사 정권교체 실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4·11 총선 출마자들은 지난 13일 “정권교체와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주지역 첫 진보정당 지역구 당선자인 오병윤(서구 을) 당선자와 김관희(동구 을)·윤민호(북구 을)·황차은(광산구 을) 후보 등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 최초 진보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며 “야권연대를 지켜준 시민과 진보정치를 믿고 기회를 주신 서구민에게 정권교체와 노동자 서민의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안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신뢰와 역량을 쌓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광주의 독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12월 대선에서 강력한 야권연대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굳건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1총선에 출마했던 무소속 이병훈 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전날인 지난 10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막춤을 추며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선거 졌지만 유튜브 달구는 '이병훈 동영상'

'댄스편' 조회건수 60만 육박...총선 관련 최고

4·11 총선이 막을 내렸지만, 광주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의 이색 선거 동영상인 유튜브(You Tube·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에 올라온 '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이병훈 댄스 편' 동영상의 조회 건수는 15일 오후 5시 현재 59만4065건에 이르면서 4·11총선 관련 동영상으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선거일인 11일까

지 조회건수가 10만 건을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가 끝났음에도 무려 50만 명의 네티즌들이 이병훈 후보의 이색 선거운동 동영상을 본 셈이다.

화제의 동영상은 선거운동이 절정에 오른 지난 6일 이병훈 후보의 선거운동원 10여 명이 퇴근시간인 오후 7시에 광주 동구 남광주 시장 인근 도로변에서 클럽댄스 음악인 일명 '뿔바스틱'에 맞춰 테크노 막

춤을 추는 모습이다. 이들 선거운동원들은 여대생들과 주부들로 구성된 댄스팀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은 본 네티즌들은 “오, 대박. 이번 당선되셨나요?” “멋집니다. 중독성 강하네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퇴근길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주기 위해 신나는 댄스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앙금' 여전 광주 서구의회 개원 기념식 김종식 청장 축하 참석 일부 구의원들 퇴장... 갈등 장기화 조짐

'구청장 막달' 논란으로 불거진 광주 서구의회와 김종식 서구청장과 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13일 열린 21주년 기념식을 열었지만, '막달' 논란을 빚은 김종식 서구청장이 참석하지 일부 구의원들이 일제히 기념식장에서 퇴장하는 등 기념식이 파행을 겪었다.

김 청장과 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농성동 서구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2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하지만, 김 청장의 인사말 순서에 11명의 구의원 중 류정수·이은주·이대행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3명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와 관련한 의회 행사마포우 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비판적으로 나오자 이에 반발해 의원 3명에 게 '9급 시험에도 합격 못할 X들'이라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맞서 서구의회 의원들은 구청장 사퇴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구의회와 구청장 간 팽팽한 대립관계를 보여 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축하사를 통해 “제6대 서구의회 의원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며 치켜세운 뒤 “서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이 절실하다”고 의원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갈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기념식장에 남아있던 의원들도 김 구청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숨기지 않고 속내를 드러냈다. 특위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옥수 부의장은 축하 건배사에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청장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구와 의회의 상생 번영을 위해 건배하겠다”고 구청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건배사가 끝난 뒤 김 구청장이 김 부의장에게 다가와 “제가 10일은 연습해야 가능한 훌륭한 건배사를 했다”며 악수를 청하자, 김 부의장은 머리를 허리까지 숙이면서 “악수해주셔서 영광”이라며 역설적 표현으로 구청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수 또 지방의원 보궐선거 치른다

시의원 2명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여수시의원 2명이 뇌물수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어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13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가운데 이기동(56)·정병관(63)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6형사부는 지난

해 12월29일 두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해 배척되었던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지난 12일자로 여수시의회에 통보했다.

두 의원은 고법 파기 환송심 이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꾸준히 받았지만 대법원 재상고를 이유로 사퇴하지 않았다.

이로써 오전 시장 뇌물비리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여수 지방의원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두 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여수시의회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혈세는 모두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타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쪽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펄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